

NEWS

2025년 3월 20일 목요일

광주 전략산업 연계 맞춤형 인재양성 '주목'

▶1면 '현재의 침묵'서 계속

일각에서는 현재가 고심을 거듭하면서 4월 초 선고할 것이란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문형배 현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 선 재판관이 다음 달 18일 퇴임하는데, 이 시점이 마지막 선고일 될 것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또한 다른 고위 공직자 탄핵심판 사건이 번수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은 지난달 19일 변론을 마치고 선고로 기다리고 있는데, 윤 대통령 측과 한 총리 측은 대통령 사건에 앞서 결론을 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도 번수가 될 수 있다. 지난해 헌법재판관 미임명 헌법소원을 제기한 김경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는 전남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임시로 부여해달라는 취지의 임시지위 가처분 신청을 현재에 냈다.

현재가 가처분을 인용하면 윤 대통령 사건 선고로 앞두고 9인 완전체가 된다. 그러나 현재가 8인 체제에서 심리를 이어왔기 때문에 선고도 8인으로 진행할 것으로 예상이 지배적이다.

현재의 침묵이 길어지자 탄핵 찬반을 추구하는 시민들의 냉성과 시위도 장기화되고 피로도 쌓이고 있다.

▶1면 '의대생 휴학계'서 계속

앞서 조선대는 지난 17일 군 입대 등 특별휴학으로 인정하는 사유가 아닌 휴학원은 모두 반려 조치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서신을 발송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날 동맹휴학 중으로 판단된 450여명에 대한 휴학원을 반려했다.

또 28일까지 학교에 돌아오지 않으면 학칙에 따라 처분하겠다고 고지했다.

전남대는 휴학 중인 의대생 690여명의 휴학원을 21일까지 반려하기로 했다.

유급이나 제적이 발생할 시에는 학칙대로 처리하기로 했다.

전국 대학에서 동맹휴학 중인 의대생들의 휴학계를 반려하고, 학칙대로 처리하기로 하면서 일부 대학에서는 제적으로 반지사가 생기면 편입생을 뽑아 채우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도 알려졌다.

의대생 편입생은 예과 과정을 인정받고 본과 1학년으로 입학하는 방식이다.

한 대학 관계자는 "일부 대학들의 의대생 편입학 검토는 집단휴학으로 인한 재정적 부담이 원인이 될 것으로 알고 있다"며 "또 장기간 결원이 지속될 경우 학사운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반영된 것 같다"고 전했다.

시·시교육청, 교육발전특구 우수지역 선정

강기정·이정선 "교육혁신 노력 전국서 인정"

지역 특화·전략산업 연계 맞춤형 인재 양성 정책을 선보이고 있는 광주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평가에서 광주교육발전특구가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광주시와 시교육청은 교육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평가'에서 광주교육발전특구가 우수지역으로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광주는 지난해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선정돼 오는 2026년까지 특별교부금으로 매년 최대 110억원을 지원받는다. 현재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은 총 90

개(광역시 7, 기초 83) 지자체가 지정·운영되고 있으며, 광주를 포함한 17개 지자체가 우수지역으로 선정됐다.

광주 교육발전특구는 "다양한 실력으로 내일이 빛나는 미래교육도시" 조성을 목표로 공교육 혁신을 통한 수요자 맞춤형 인재 양성, 지역특화산업과 연계한 인재 양성 및 취업·창업 지원 강화, 광주형 AI 인재성장사다리 연계를 통한 AI·디지털 인재 양성, 돌봄확대 및 지역거주여건 개선을 통한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의

4대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광주시와 교육청이 함께 지역 미래 전략산업인 인공지능(AI), 반도체 산업 등과 연계한 공교육 혁신을 통해 수요자 맞춤형 인재양성을 추진한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실제 중등직업교육 혁신과 광주형 마이스터고 지정 등을 통해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교육과정을 확대하면서 직업계고 취업률이 상승(2023년 53.0%→2024년 55.9%)하고 직업계고 지원율(2023년 일부 미달→2024년 127%)도 크게 끌어올렸다.

지율형 공립고등학교들은 전남대·조선대·한국에너지공과대 등 지역대학과 협력해 '광주근현대사 교과서' 공동 개발,

인공지능(AI) 실습, 의예·약학·간호대학 연계 교육, 과학과 심화 과목 공동 교육과정 운영 등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24년 305명의 전문인력을 배출한 인공지능(AI)사관학교와 설립을 본격화한 AI영재고 등을 통해 지역 특화산업인 AI와 교육을 연계한 광주만의 인재양성 사다리를 구축하고 교육·취업·창업·정주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 점도 인정받았다.

광주시와 교육청은 앞으로 교육발전특구 분 지정에 의해 지역 대학, 공공기관 등 33개 기관으로 구성된 거버넌스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 체계적인 성과관리를 통하여 중점사업을 고도화하는 한편

대시민 홍보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강기정 시장은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광주의 강점인 통합돌봄, 인공지능(AI) 및 미래차 등 지역 특화산업과 교육부의 교육개혁 과제를 연계해 광주만의 인재양성 사다리를 완성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선 시교육감은 "광주교육발전특구가 시행 1년만에 하나 둘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며 "우리 아이들이 우수한 인재로 성장해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 성과보고회'를 20일 오후 2시 서울 관공사에서 개최한다.

김인수 기자 joinsu@gwangnam.co.kr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박현식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이 19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전남 구제역 차단방역 대책 추진상황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전남도

영암서 구제역 2건 또 추가...전남 총 10건

축산물 소비 안전 우려...“식용에는 문제 없어”

영암에서 또다시 구제역 2건이 추가되는 등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 전남에서만 지금까지 총 10건의 구제역이 확인되며 방역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19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 구제역 추가 발생 2건을 포함해 총 10건이 확인됐다. 이날 신규로 보고된 9차·10차 발생 농장은 각각 기존 발생 농가에서 0.9km, 2.7km 떨어진 곳에서 확인됐다. 두 농장은 양성축만 선별적으로 살처분한다.

이날 현재 구제역 발생 지역은 영암 9건, 무안 1건 등으로 영암에서만 90%가 발생했다.

전남도는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 도내 전 시·군에서 백신 접종을 진행 중이

다. 현재 접종률은 92% 수준이다.

앞서 전남도는 1주일을 확산고비로 판단하고 오는 22일 까지 백신 접종을 마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전남도는 현재 방역 초소 30개소를 운영하며 방역활동에 총력을 집중하고 있다. 어린이 차량 32대, 공동 방역 차량 99대, 임차 차량 42대를 동원해 집중 소독을 실시 중이다.

특히 축산 차량을 대상으로 2단계 소독 절차를 적용하고 있는데 농장을 출입하는 차량은 거점 소독시설에서 1차 소독 후, 농장 입구에서 다시 한번 소독을 거치도록 조치됐다.

역학 관련 차량은 소독 후 7일간 이동

을 제한하고 있으며 사료 운반 차량 24대, 가족 운반 차량 18대, 기타 차량 29대 등 총 70여대를 관리하고 있다.

영암과 무안군 인근의 해남과 진도군도 이번 주말 개막 예정이던 달마고도 힐링 축제와 29일부터 계획했던 신비의 바닷길 축제의 일정 연기를 검토하고 있고 봄 축제를 앞둔 다른 시군도 역시 구제역 발생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구제역이 확산되면서 소·염소 등 축산물 소비 안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박현식 전남도 농축산식품 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도축 과정에서 철저한 검사를 거치기 때문에 식용에는 문제가 없다"며 "국가 매뉴얼에 따라 모든 안전 검사를 엄격히 진행하고 있어 국민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소비해도 된다"고 강조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호남권 홍역 7명 발생...시, 대응체계 강화

접촉자 파악·증상 모니터링 잠복기 21일 자택 격리 권고

광주시가 해외 유입으로 인한 홍역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대응체계 강화에 나섰다.

19일 광주시에 따르면 전남 기준 호남권역 홍역환자가 총 7명이 발생함에 따라 호남권 질병대응센터, 5개 자치구 보건소, 광주시 감염병관리지원단, 관계기관과 협력해 지역사회 전파 방지를 위한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나섰다.

광주시는 지역 의료기관과 연계해 의심환자가 발생할 때 빠른 신고 및 접촉자 파악, 증상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감염병 정보 안내 등 홍역 예방수칙을 홍보할 계획이다.

또 24시간 비상 대응체제를 구축, 의심환자 신고·감시·검사·역학조사를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협력체계를 상시 운영한다.

호남권역 홍역환자들은 동남아(베트남) 여행 후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 과 영·유아 등이다. 면역체계가 취약한 1세 미만 영유아는 홍역 감염 때 폐렴·중이염·뇌염 등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홍역 예방 국가 방문을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

보건소에서 홍역 환자 접촉자로 통보받으면 21일간(잠복기) 증상을 면밀히 관찰하고, 외부활동을 최대한 자제

해야 한다. 발열·발진·기침·코물 등 홍역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마스크 착용 후 대중교통 이용은 가급적 자제하고, 다른 사람과 접촉을 최소화해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양동민 기자

전남 구제역 확산 차단...재난관리기금 3억 투입

전남도는 영암과 무안에서 잇따른 구제역 발생에 대해 재난관리기금 3억원을 구제역 심각단계인 10개 시·군과 심각에 준하는 방역조치가 취해지는 2개 시·군 등 12곳에 긴급 투입한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지난 15일 긴급방역대책 점검 영상회의에서 백신접종에 모든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최단기간에 접종을 완료하고, 전남공무원을 배치해 매일 2차례 확인과 소 이외에 다른 우제목에도 임상검사를 완료하도록 당부했다. 또 방역수칙 매뉴얼화를 통해 체계적 방역관리를 강조하고, 공공수의사 투입과

자가접종 허용 등 모든 지원에 나설 것을 지시했다.

이에 전남도는 더 이상의 수평 전파, 확산 방지를 위해 재난관리기금을 긴급 투입해 백신접종, 방역·소독약품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군에 직접 지원하기로 했다.

강영구 전남도 도민안전실장은 "더 이상의 구제역 발생은 없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차단방역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재난관리기금을 긴급 투입하게 됐다"며 "시·군에서는 신속하게 백신접종과 집중소독 등 차단방역에 온힘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박정렬 기자 hobul@


디케이 주식회사

봄, 공기의 새로운 정의 공간을 빛내는 선택

봄철 미세먼지와 꽃가루도
이제 걱정 없이,
깨끗한 공기를 집 안으로.

모든 순간을 더 건강하게
디케이 공기청정기·살균기

www.e-dk.co.kr




판매 및 A/S 문의 1544-1154

